



남원시, 주요 도로변·요천 꽃 단지 봄꽃 식재

남원시에서는 봄을 맞아 관광남원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청로 등 18개 노선 주요 도로변 화단 및 꽃 화분에 팬지, 스노우렌드 등 봄꽃 14만본을 식재했다. 식재는 지난 3월부터 남원역을 시작으로 요천로 시청로 등 주요 도로변 300여개 꽃박스에 팬지, 스노우렌드 15,930본을 식재하였으며, 남원대교, 봉림교, 춘향교, 승사교 꽃다리 4개소에 봄꽃 30,600본을 식재하였다. 또한 공한자에 수레국화, 꽃양귀비를 파종하여 남원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조성,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과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 혁신동, 아름다운 거리 조성 봄꽃 단장

전주시 덕진구 혁신동 주민센터(동장 이성순)는 5일 지역 자생단체들과 함께 봄맞이 화단 조성 행사를 진행했다.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6개 자생단체가 함께한 이날 봄꽃식재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전주시립양묘장에서 생산한 팬지, 비올라 등 3천 본의 묘목을 주민들이 이동이 많은 주민센터 뒤편 녹화 화단에 식재했다. 이성순 혁신동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친 동 주민들이 피어날 봄꽃을 보며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동네에 항상 관심을 갖고 봉사해주신 자생단체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비전대 학생들, 하림산업 현장견학 실시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정상모)는 하림산업을 방문해 취업 현장견학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하림산업에서 시행된 현장견학에는 재학생 40명과 박심훈 취업지원처장 최형주 취업지원부처장 정진영 채용정보홍보담당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하림그룹 홍보동영상 시청, 생산라인 견학 및 직 무소개, 하림산업에 취업한 선배들과의 대화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박심훈 취업처장은 "취업전쟁에서 성공한 졸업생들도 본격적인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임실읍,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공익활동 시작

임실읍 노인일자리(마을지킴이) 참여 어르신들의 4월 공익활동이 지난 4일 시작됐다. 지난달부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업무 연속성 계획(BCP)을 반영하여 하루 4시간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연간 총수령액은 같을지라도 한 달 수령액이 상향 조정되어 만족도가 높아졌다. 한 달 10번 하루 4시간씩 임실읍 시가지지를 순회하면서 버려진 쓰레기 줍기 등의 활동을 하며 건강을 지킬 수 있어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박세민 임실읍장은 "어르신들의 안전사고에 특별히 주의를 부탁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전준영 기자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김철(JTV전주방송 보도국장)씨 부친상= 빈소: 전주시 효사랑장례타운, 발인: 7일 오전 10시, 연락처: 063-228-4441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되길”

서신신협,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랑'에 100만원 기부

서신신협(한병훈 이사장)은 5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치고 힘든 전주시민을 위한 성금 100만 원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랑'에 기부했다. 한병훈 서신신협 이사장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전주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병관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랑 이사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나눔을 실천하여 모두의 귀감이 되어 주신 한병훈 이사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기부해주신 성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주시민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랑은 △전주형SOS긴급지원사업 △사랑나눔간병비지원사업 △우리아눔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복지시간지대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전주시민의 자발적인 기부참여(문의=063-281-0030)를 기다리고 있다. /김윤상 기자



경계선사업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복지시간지대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전주시민의 자발적인 기부참여(문의=063-281-0030)를 기다리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북대, 글로벌인재관·인문사회관 인근 나무심기 행사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5일 김동원 총장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 직원 등 100여명은 이날 글로벌인재관과 인문사회관 인근에 개나리 800그루를 심었다. 또한 대학본부 증축 및 리모델링을 기념해 본부 별관 앞에 봄꽃나무인 홍도화를 심었다. 김동원 총장은 "이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 대면수업이 진행되고, 대학 내 기관들도 자리를 잡아면서 이렇게 기념식수와 식목 행사를 갖게 돼 감사하다"며 "교육의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서 국가거점대로의 새 위상을



갖추고 여러 정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2050 탄소중립 실천' 나무심기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5일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나무심기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주교대에 따르면 매년 환경을 보전하고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도록 나무심기 행사를 통해 조경이 아름다운 대학으로 푸른 캠퍼스를 조성하고, 주변 한옥마을과 대학로를 찾는 주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해 왔다. 박병춘 총장은 취임을 기념하는 은목서를 직접 심으며 "정성스럽게 심은 수목들이 코로나블루로 식민한 일상을 보내는 대학 구성원과 주민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봄의 활력과 희망을 느끼는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나무심기 행사는 전주에서 주관하는 '2050 탄



소중립 실천' 릴레이 동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장은성 기자



효자2동 지사협, 소외계층에 밀반찬 전달

전주시 완산구 효자2동(동장 김혜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현오)는 5일 동 주민센터에서 독거노인 및 저소득 20세대대를 위한 '사랑의 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사비로 구입한 재료로 직접 반찬을 만들어 각 가정에 배달하며 안부도 물었다. 최현오 위원장은 "회원들이 정성으로 마련한 밀반찬들이 홀몸 어르신들에게 따뜻하고 행복한 식사시간이 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웃돕기 및 지역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며 함께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효자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밀반찬 나눔 사업 외에도 안심 야쿠르트 배달사업, 명절 이웃돕기, 생신상차림 사업 등 지역의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북동부보훈지청, 고령 보훈가족에 빨래 봉사

전북동부보훈지청(지청장 최정길)은 5일 전주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박정석)와 함께 고령 보훈가족을 위한 '이웃사촌 빨래' 행사를 진행했다. 이웃사촌 빨래는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의 직접 찾아가는 이동세탁 서비스로, 이날 보훈지청 주차장에서 이동세탁차량을 통해 독거 또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재가복지대상자의 겨울 이불과 침구 등을 수거해 세탁부터 일괄육 건조까지 지원했다. 전북동부보훈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내 전문가 간 협력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임실군청 공무원노조, 주말농장 체험활동 개최

임실군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2일 임실 읍내에서 조합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주말농장 체험활동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와 비상근무 등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해진 조합원들이 가족과 함께 주말농장에 참여하여 좋은 추억을 남기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30여명의 조합원들은 가족들과 함께 군에 소재하는 토지 약 200평 정도에 감자 심기를 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조합원은 "부모님과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여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어서 좋았다"고 전했다. 김진환 위원장은 "주말농장 운영으로 농촌 체험을 통해 건전한 여가활동을 누리고 안전한 먹거리를 직접 생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주말농장 뒷밭을 통해 조합원들이 코로나19 시대 우울감을 조금이라도 덜고, 수확한 농산물을 직원들과 나누면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전준영 기자



군산 흥남동 내고향 족발 착한가게, 33호점 가입

군산시 흥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최정희)는 흥남동에 위치한 흥남동 내고향 족발(대표 김혜영)에 착한가게 현관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매장 앞에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하는 착한가게 캠페인에 동참하고 흥남동 착한가게 33호점 현관을 전달했다. 이번 착한가게에 가입으로 흥남동 내고향 족발은 매월 수익의 일부를 기탁하게 되며, 이 성금은 흥남동 복지허브화 기금으로 적립되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사용될 예정이다. 김혜영 대표는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의 온기가 퍼져나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가부에 동참했다"며 "꾸준한 나눔을 통해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착한가게란 중소기업의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출액의 일정액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모든 가게다. 매장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학원, 병원, 교회 등 어떠한 업종의 가게도 참여가 가능하다. /군산=남현봉기자



군산 소룡동, 주민자율 봄맞이 환경정화 실시

군산시 소룡동은 동 일대에서 깨끗한 우리동네 만들기 봄맞이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활동은 소룡동 통장협의회 회원들과 소룡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40여 명이 참여한 3개조 나눠서 관내 소공원과 주민 이용이 많은 도로가를 중심으로 버려진 쓰레기(담배꽂이, 불법광고전단지)를 수거하고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소공원 벤치, 버스 정류장 등 주민편의 시설에 대한 소독 활동도 병행하며 쾌적한 환경조성에 구슬땀을 흘렸다. 소룡동 통장협의회 관계자는 "깨끗하고 건강한 우리동네 만들기를 위해 애써주시는 통장님들께 감사드리고 잠시나마 주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최성은 소룡동장은 "환경정화를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이 모두 내가 사는 지역을 깨끗이 유지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환경정화가 필요한 곳을 깨끗이 할 뿐 아니라,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